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 제3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물드는 산, 멈춰선 물-송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1일 개막한다.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31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열리는 목포 문예회관 전시장에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목포=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 내년 살림살이 더 팍팍해진다

부동산·경기침체... 지방세·교부세·국비 역대급 '3중 세수 환파'  
채납액 징수·지방채 발행 검토... 국회에 국비 증액 요청하기로

내년에는 광주시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의 교부세 예산 축소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에다 내년도 국비까지 역대급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일단 국회에 국비 증액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파른 하락세로 인한 지방채 발행 여건 탓에 지역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은 물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민원 사업 등의 위축이 우려된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지방소득세·법인세·양도세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4억원 감소했으며, 올 연말까지 2500여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또 내년 정부에서 받게 될 지방교부세도 올해 대비 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경기 침체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모두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광주시 등 전국 17개 시·도에 건전재정 기초 확립을 요청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도 8조5000억원 정도 줄일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실제 정부가 29일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하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로 66조7711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75조2883억원) 대비 11.3%(8조 5172억원)가 줄어든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세원 불균등 등에 따른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세제로, 광주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의 경우 축소 배정된다면 역점 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앞선데 맞춘 격으로 광주시의 2024년 정부 예산액도 지난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3조2397억원)보다는 971억원(3.0%) 줄어든 3조1426억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특히 민선시대 들어 광주시의 국비 확보액이 감소(최종 반영분 기준)한 것은 2011년도 예산을 수립했던 2010년(-3.6%) 이후 13년 만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일단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채납 징수 등에 나서는 한편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중단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회를 상대로 내년 국비 증액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데다, 채무액도 1조 5000억원(채무비율 18.6%)에 이르는 탓에 대규모 지방채

발행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때 아닌 정유성 논란이 광주시와 정부, 여당간 대립구도로 확산하면서, 국회 차원의 재정 지원 요청 등도 쉽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날 계획됐던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간 예산정책 간담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사전에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와 교부세 감소 등을 예측하고, 시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정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만 일반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자치단체의 대형 역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부족한 재정 지원 등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尹, 5~11일 인니 아세안·인도 G20 참석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中 시진핑 참석 여부 따라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 등

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연달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내주 순방 계획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일정도 소화한다.

방문 이틀째인 6일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인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8일 다음 순방지인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20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중정상회담이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개최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아침·저녁 선선한 날씨

## 광주·전남 주말에는 비

9월 첫 주말을 맞은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3일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지난 31일 예보했다.

이번 비는 북쪽의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만나 형성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린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1일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지만, 2일부터 3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일명 '가을장맛비'가 내리겠다. 2일까지 광주·전남에 30-80mm의 비가 오고, 일부 전남 해안가에는 최대 100mm까지 강우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넘어 무덥겠지만 아침·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져 서늘해 지겠다.

1일 광주·전남의 낮 최고기온은 29-32도에 분포하고, 2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이고 낮최고기온은 28-31도로 일교차가 발생하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려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주의하길 바란다"며 "물품과 천동·번개,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사고 부르는 대형화물차 갓길 주차 ▶6면



북스- '살롱 드 경성' '혼돈의 지역사회' ▶14-15면



도시를 살린 ART 투어리즘 - 대전광역시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태양·바다·호수를 품은 '관광레저, 에너지산업'의 최적지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Dynamic**

레저, 스포츠  
젊음과 역동성

**Energy**

친환경  
재생에너지 공급

**Joy**

정원, 리조트, 수변  
즐거움과 자유로움

**Wealth**

건강, 먹거리, 워케이션  
풍요와 여유

## 구성지구

스마트, 정원, 에너지

## 삼호지구

골프산업 중심의  
관광레저

## 삼포지구

모터스포츠,  
자동차부품